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정자원관리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blems Caused by the Internet Us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박사과정 김 유 경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Ki Young, Lee

Doctoral Course : Yoo Kyung,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가정자원관리문제의 실태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의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blems caused by the Internet use.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blems are composed of time management problem, money management problem and interpersonal resource management problem. And time management problem is perceived as most serious of the three. The perception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blem is influenced by socio-demographics variables and Internet related variable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public policy.

I. 서론

우리 가정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체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적·기술적·사회적 환경

과 상호작용하고 이에 적응해가면서 가족원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정생활은 대체로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인 듯 보이나, 대처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기도 한다. 현재 가정을 둘러싼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가장 주목할만한 변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화 중 하나는 정보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보사회로의 변화의 물결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사회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야기한다. 물질적 여건과 제도가 변하면 사람의 생각도 변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이나 가족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 결국 가속화되는 정보화는 개인 및 가족의 자원관리 행동을 변화시켜 새로운 행동양식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정보화라는 새로운 조류는 각 가정마다 정보기술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가족관계, 여가생활, 자녀교육 그리고 가정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전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박미석, 2002).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정 내에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보화의 영향이 가정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화로 인해 가정관리상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확인해보는 것은, 변화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예측가능한 상황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어느 정도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가정정보화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고선주, 2000 ; 박미석, 2002 ; 박미석·이유리, 2000 ; 백중화·박성연, 2002 ; 이기영·이현아, 2002 ; 이현아, 2001 ; 정서린, 2000)은 대체로 정보화에 따른 전체적인 변화를 보거나 또는 정보화로 인한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관리행동의 향상 여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정관리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가정 내 중요 자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의 영향이 가정 내 개인 및 가족 전

체에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가정관리는 가족들이 가치있다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과정이다. 즉 가정관리는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창조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적 행동이다. 가정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개인이나 가족생활에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임정빈 외, 2002). 정보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는 간단히 말해 가정의 물적·인적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가정관리상의 문제를 물적·인적 자원의 관리를 중심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자원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원에 의거하여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물적 자원은 유형적인 것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자동차, 주택, 재정상태 등이 이에 속한다. 인적 자원은 덜 유형적인 것으로 개인의 특성과 속성을 뜻하며, 인간에 내재적이거나 시간자원과 같이 인간과 떨어져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Deacon & Firebaugh, 1988). 한편 Gross 등(1980)은 인적 자원을 개인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나누고 개인적 자원은 개인에 속한 인적 자원으로, 대인적 자원은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협동, 친밀감, 충성심, 의사소통과 같이 여러 사람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자원이 대인적 자원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에 근거하여 시간(개인적 자원), 금전(물적 자원), 대인적자원의 세가지 자원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정자원관리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간관리의 문제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 시간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으며, 정보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문헌연구(정서린, 2000) 및 실증연구(이현아, 2001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결과들을 참고로 하여 시간관리상 문제를 유추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이현아(2001)의 연구에서는 시간관리의 변화를 시간관리행동의 변화와 시간사용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하였는데, 시간관리행동의 경우 계획성, 효율성, 균형성의 세 차원 중 효율성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획성이나 불균형성의 경우 그다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사용시간별로 볼 때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시간관리의 계획성을 떨어뜨리고 불균형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차원 중 계획성과 균형성에 주목하여 계획한대로 되어지지 않고 생활시간상의 균형이 깨어지는 점을 시간관리상의 문제로 보았다.

한편 시간사용의 변화를 통해서도 시간관리상의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의 '2000년 국민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에 따르면, 2000년 현재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증가와 인터넷 이용 확산으로 시간이 많이 단축된 생활영역은 TV시청(50%), 수면(46.9%), 독서(37.5%), 취미생활(35.9%), 라디오청취(3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에 따라 수면시간의 감소가 현저히 나타나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휴식의 감소, 운동 및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흥미의 감소 등으로 생활시간구조상의 균형을 잃게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현아(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수면시간과 휴식시간, 가사노동시간, 운동 및 산책시간, 가족단란시간은 인

터넷 사용 이후 늘었다는 비율보다 줄었다는 비율이 20% 이상 높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2) 금전관리의 문제

정보화에 따른 가계의 금전관리 문제는 지출구조의 변화와 가계 통신비용의 문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미리 계획하여 구매하는 관리적 행동에서 벗어나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이버 마켓은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과 비교할 때,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한 저가격, 배너광고나 타겟광고와 같은 구매시점 광고, 많은 경품 제공, 신용카드나 제3의 화폐 가치 수단을 통한 현금의 필요 없는 지불 시스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영숙, 2000).

또 한가지는 인터넷 사용에 따라 통신비가 증가하면서 가계의 지출비목별 배분에 있어서의 균형이 깨어지는 문제이다.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 소득이 일정할 경우 한 비목의 지출 증가는 다른 비목의 지출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통신비의 과도한 부담은 필수적이거나 혹은 우선적인 비목의 지출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통신 경영연구소(2000)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 6월 우리 나라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8만5천4백5원으로 1999년 같은 기간(6만5천7백1원)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6월의 4.2%에서 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이 확산되면서 그 비용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계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비목의 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지출구조상 균형이 깨어지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현아(2001)의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29.5%가 인터넷 사용 이후 인터넷관련 비용으로 인해 다른 비목의 지출이 줄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통해 가계지출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활양식의 변화가 일어나 여가비용이 증대하고 질적 소비가 확대되는 등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정서린, 2000), 물질적 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형태의 증가는 좀더 필수적인 비목의 지출에 압박을 가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대인적자원관리의 문제

대인적자원이란 두 사람 이상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인적 자원을 의미하므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대인적자원관리의 문제로는 가족원 간의 친밀감이나 사랑, 상호작용 등이 약화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의 가족관계에 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떨어져있는 가족원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지면서 가족 상호작용이 더욱 증진되어 기존에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조정문 외, 1999 ;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0¹⁾), 근무형태의 유연화로 가족 간의 역할 분배와 상호작용이 증대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은 가족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가족외적 커뮤니티의 개별적 참여나 개별활동 추구로 인해 가족 공동시간이 줄고, 가족의 독립공간을 지향하는 주거구조와 정보통신기기의 개인적 소유로 가정 내에서 개인 중심적 생활방식을 고수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가 더욱 약화되리라는 상반된 전망도 있다. 가정에서의 컴퓨터 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컴퓨터의 이용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TV시간을 단축하게 하며, 가족과의 여가행위에 대한 참여를 축소시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Bird et al., 1990 ; 정서린, 2000). 또한 TV가 오랫동안 가

족성원을 한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해왔으나, 이러한 모습이 점차 줄고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에 따라 다른 방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자기 방에서 TV를 본다거나 또는 자기 방에서 인터넷이나 게임을 함으로써 가족성원간에 마주 대할 기회가 축소되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고립되고 있다(박부진, 1998).

박부진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평소 가족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족성원간 상호관계가 우호적인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 이후 가족간의 대화가 늘고 그 내용도 풍부해지며 가족간에 유대가 강화된 반면, 평소 가족원간 대화가 별로 없고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사용이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의 영향은 가족 특성에 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의 사용이 가정관리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래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정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정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제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도구 구성

1) 자원관리 문제

(1) 시간관리 문제

시간관리 문제로는 시간관리의 계획성 결여

1) 인터넷 이용자의 55%가 이메일 교환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가족과 이메일하는 사람 중 59%는 가족과 의사소통이 증가했다고 하며, 이메일 사용자의 30-35%가 가족 및 친구와 이메일을 통해 보다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와 관련된 1문항과 전체적인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서의 균형 상실과 관련된 2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문항 간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2) 금전관리 문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금전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을 계획성과 균형성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아래의 두 가지 문제를 통해 파악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금전관리 행동상의 문제는 충동구매에 대한 문항과 통신비 부담에 따른 지출비목별 균형 파괴의 두 문항을 설정하였으며, 문항간 신뢰도는 .60이다.

(3) 대인적자원관리 문제

대인적자원관리 문제는 가족원 간 친밀감이나 의사소통 등 두사람 이상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 척도는 가족공유시간의 부족, 가족 간 공통관심사의 감소, 가족 간 불화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문항간 신뢰도는 .73이었다.

2) 인터넷 관련 변수

(1)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시간은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1일 평균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직장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용상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만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1일 100분을 기준으로 100분 미만인 경우는 light user, 100분 이상인 경우는 heavy user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인터넷 사용능력

인터넷 사용능력은 한국정보문화센터(2000)를 참고하여 못하는편, 보통, 잘하는편, 아주 잘함의 네 단계로 기입하게 하였으며²⁾, 분석시에는

못하는 편을 하, 보통을 중, 잘하는 편과 아주 잘함을 상으로 하여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척도는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고, 본조사에 앞서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위의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³⁾에 의뢰하여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거주자 6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조사시 40대가 포함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조사와 면접원을 통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10대, 20대, 30대, 40대의 비율은 각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률을 고려하여 20 : 40 : 30 : 10으로 의도적으로 할당하였다.

조사 결과의 분석을 위해 평균, 빈도, 백분율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가정자원관리문제의 실태

1. 가정자원관리문제의 인식

가정자원관리 문제 인식을 영역별 평균값을 통해 비교해보면,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시간관리 문제(3.02)이며, 다음은 대인적 자원관리

2) 인터넷에 접속하여 내용을 구경하는 정도를 못하는 편으로, 검색기능 활용 및 이메일을 통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보통으로, 검색이나 이메일은 물론 필요한 경우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잘하는 편으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연산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뉴스그룹이나 FTP 등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아주 잘함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3) 자료 중 430부는 나라리서치에서 패널을 대상으로 인터넷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00부는 GDS(Good Data Service)에서 면접원을 통한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수	집 단	빈 도 (%)	변 수	집 단	빈 도 (%)
성 별	남 성	330 (52.4)	결혼여부	미 혼	232 (36.8)
	여 성	300 (47.6)		기 혼	398 (63.2)
연 령	10대	121 (19.2)	소 득	200만원 미만	146 (23.2)
	20대	261 (41.4)		200~300만원 미만	194 (30.8)
	30대	188 (29.8)		300~400만원 미만	166 (26.3)
	40대	60 (9.5)		400만원 이상	124 (19.7)
				평 균	287만8천5백원
교육수준	고등학생	89 (14.1)	직 업	사무직	134 (21.3)
	고 졸	131 (20.8)		비사무직 및 기타	223 (35.4)
	대학생	119 (18.9)		학 생	209 (33.2)
	대졸 이상	291 (46.2)		전업주부	64 (10.2)

계 630명

문제(2.58), 금전관리 문제(2.46)의 순으로 시간관리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인식되었다(<표 2>).

시간관리상의 문제 중에서는 생활시간상의 균형 상실(평균 3.20점)이 가장 크게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다음으로 계획성의 결여가 문제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반해 업무나 학업의 지장을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 문항별 평균은 각각 2.26, 2.65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와 그저그렇다(3점)의 사이에 위치하여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겠다.

다. 이는 아직 인터넷 사용에 따른 금전관리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만큼 전자상거래나 기타 인터넷을 통한 가게 운영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 비율은 7.7%에 불과하며(한국전산원, 2001), 인터넷 사용자만을 볼 때에도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1/4분기 인터넷 사용경험자는 전체의 14%이며, 인터넷 매트릭스의 조사결과에서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김영찬·이두희, 2002에서 재인용),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금전관리상의 문제를 느끼기에는 아직 역부족한 상황이라 하겠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표 2> 가정자원관리 문제의 인식

문 항		평 균 (5점만점)	총평균 (5점만점)
시간관리 문제	계획성 결여	3.06	3.02
	생활시간상의 균형 상실	3.20	
	업무나 학업의 지장	2.81	
금전관리 문제	충동 구매	2.26	2.46
	지출비목 간 균형 상실	2.65	
대인적자원관리 문제	가족 간 공유시간 감소	2.90	2.58
	가족 간 공통 관심사 감소	2.66	
	가족원 간 불화 유발	2.17	

에 따르면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9년 246억원에서 2001년 1조8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한국인터넷백서 2001),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향후 금전관리 문제의 인식이나 실태 모두 변화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대인적자원관리상의 문제도 세 문항 모두 평균값은 3점 이하로 대체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거나, 그 중 상대적으로 문제로 느끼는 항목은 가족공유시간의 감소이다. 이는 공통관심사의 감소나 가족 간 불화 같은 간접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공유시간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변화를 더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변수에 따른 가정자원관리문제

가정자원관리 문제들의 심각성 정도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를 보일 것이며, 각 집단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우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집단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시간관리 관련 문제 세 가지에 대해 각 집단별로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계획성 결여는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및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사용능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볼 때, 10대 집단(3.45)이 다른 연령대 집단(20대 3.01 / 30대 2.99 / 40대 2.70)에 비해 훨씬 높은 정도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교육수준이나 직업별로 볼 경우에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이를 상대적으로 더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혼(2.91)보다는 미혼(3.15)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계획에 따른 시간관리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집단은 학생 집단, 특히 10대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집단(3.33)이 그렇지 않은 집단(2.79)보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능력이 더 높은 집단일수록(하

2.63 / 중 3.01 / 상 3.11) 시간관리의 계획성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

다음으로 생활시간상의 균형 상실은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집에서의 인터넷사용시간 및 인터넷 사용능력별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10대(3.53)와 20대(3.23)가 30대(3.12)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문제를 인식하였고, 40대(2.68)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 기혼(2.96)보다는 미혼(3.34)인 경우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생(3.52)이 문제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고졸(2.92)인 경우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직업별로 볼 때에는, 학생이 가장 높게(3.45), 전업주부(2.84)가 가장 낮게 문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수면 및 휴식시간에 지장을 받는 문제는 10대 즉 고등학생의 경우에 가장 심각하며, 40대나 전업주부 집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light user 2.91 / heavy user 3.50)이 많은 집단이, 그리고 사용능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하 2.31 / 중 3.21 / 상 3.28)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지장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및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능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2.92)이 여성(2.70)보다 이러한 문제를 더 많이 느끼며, 미혼(2.95)인 경우 기혼(2.57)인 경우보다 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10대(3.20), 20대(2.82), 30대(2.68), 40대(2.38)의 순으로 점차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학생집단이 3.09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업주부 집단은 2.45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볼 때 학생집단 중에서도 고등학생 집단(3.18)이 대학생집단(3.01)보다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집에서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집단(3.11)이 적은 집단(2.70)보다 문제를 크게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인터넷 관련 변수별 시간관리문제

변 수	집 단 (빈도)	시간관리문제		
		계획성 결여	균형 상실	업무의 지장
성 별	남 성 (330)	3.04	3.23	2.92
	여 성 (300)	3.09	3.17	2.70
	t 값	.539	.681	2.553 *
연 령	10대 (121)	3.45	3.53	3.20
	20대 (261)	3.01	3.23	2.82
	30대 (188)	2.99	3.12	2.68
	40대 (60)	2.70	2.68	2.38
	F 값	28.129 ***	9.549 ***	9.670 ***
결혼여부	기 혼 (232)	2.91	2.96	2.57
	미 혼 (398)	3.15	3.34	2.95
	t 값	-2.916 **	-4.405 ***	-4.287 **
교육수준	고등학생 (89)	3.53	3.52	3.18
	대 학 생 (119)	3.12	3.38	3.01
	고 졸 (131)	2.85	2.92	2.53
	대졸이상 (291)	2.99	3.16	2.75
	F 값	8.872 ***	7.353 ***	8.492 ***
소 득	200만원 미만 (146)	3.16	3.30	2.97
	200~300만원미만 (194)	3.01	3.11	2.71
	300~400만원미만 (166)	2.99	3.14	2.78
	400만원 이상 (124)	3.11	3.30	2.81
	F 값	1.039	1.456	1.690
직 업	사 무 직 (223)	2.96	3.10	2.71
	비사무직 (134)	2.90	3.13	2.71
	학 생 (209)	3.32	3.45	3.09
	전업주부 (64)	2.91	2.84	2.45
	F 값	6.751 ***	7.529 ***	8.350 ***
인터넷 사용시간 (집)	light user (283)	2.79	2.91	2.53
	heavy user (300)	3.33	3.50	3.11
	t 값	-6.599 ***	-7.027 ***	-6.747 ***
인터넷 사용능력	하 (35)	2.63	2.31	1.94
	중 (208)	3.04	3.21	2.78
	상 (387)	3.11	3.28	2.91
	F 값	3.586 *	13.931 ***	14.417 ***

* p<.05 ** p<.01 *** p<.001

인식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능력별로는 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문제를 크게 인식하였다(하 1.94 / 중 2.78 / 상 2.91).

위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따라 학업 및 업무에 지장을 받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절실한 집단은 학생 집단-특히 고등학생-이며,

여성보다는 남성 집단에서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및 남성 집단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인터넷 사용능력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제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금전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집단별 인식 정도의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충동구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2.37)이 여성(2.15)보다, 또 기혼(2.38)인 경우가 미혼(2.23)인 경우보다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볼 때에는 고등학생(2.02)이나 고졸(2.05)보다는 대학생(2.21)이나 대졸이상(2.45) 집단에서 문제 인식도가 더 높았다. 즉 대졸이상 학력의 기혼 남성 집단이 인터넷 사용에 따른 충동구매의 문제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는 이 대상이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이버 시장환경에서의 구매는 실제시장과는 달리 여성보다 남성소비자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철, 1999; KNP보고서, 2000),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색 없이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충동구매성향에서 남성의 충동구매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는(김영숙, 2000).

다음으로 지출비목 간 균형 상실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와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2.89)이 다른 집단(200-300만원 2.63 / 300-400만원 2.50 / 400만원 이상 2.60)들에 비해 이러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이들 집단에 있어서의 자원의 제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김정현(2002)의 연구를 보면, 통신비가 1985년에는 선택재였으나 1990년, 1999년에는 필수재의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정보통신 이용의 대중화로 인해 소득계층별로 통신 지출의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통신비 부담의 문제

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에 따른 보편적인 사용으로 인해 전체적인 통신비 증가가 나타나 통신비 자체의 소득계층별 격차가 적어짐으로써 결국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은 자원이 제한된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집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집단(2.77)이 적은 집단(2.56)보다 지출비목별 균형 상실의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므로 사용시간이 적은 집단보다 문제를 다소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적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족 간 공유시간 감소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및 직업 및 집에서의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2.80)보다는 남성(3.00)이, 기혼(2.74)인 경우보다는 미혼(3.00)인 경우에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10대(3.24)가 가족 공유시간의 감소를 가장 크게 느끼며, 다음으로 20대(2.88)와 30대(2.88), 마지막으로 40대(2.40)가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 볼 때는 고등학생(3.19)과 대학생(3.11)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며, 고졸 집단(2.59)보다는 대졸 집단(2.87)이 더 느끼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역시 학생이 3.1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각각 2.83, 2.78이고, 전업주부 집단이 2.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가정 내에서의 인터넷 사용 시간(light user 2.65 / heavy user 3.18)의 많고 적음 및 인터넷 사용능력(하 2.43 / 중 2.80 / 상 3.00)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남성집단, 학생집단 및 미혼집단이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고 인터넷 사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감소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 간 공통 관심사의 감소에 대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인터넷 관련 변수별 금전관리문제

변 수	집 단 (빈도)	금전관리문제	
		충동 구매	지출비목간 균형상실
성 별	남 성 (330)	2.37	2.72
	여 성 (300)	2.15	2.57
	t 값	2.521 *	1.794
연 령	10대 (121)	2.07	2.72
	20대 (261)	2.28	2.60
	30대 (188)	2.40	2.68
	40대 (60)	2.13	2.63
	F 값	2.553	.395
결혼여부	기 혼 (232)	2.38	2.66
	미 혼 (398)	2.20	2.65
	t 값	2.057 *	.078
교육수준	고등학생 (89)	2.02	2.63
	대 학 생 (119)	2.21	2.73
	고 졸 (131)	2.05	2.46
	대졸이상 (291)	2.45	2.71
	F 값	6.369 ***	1.937
소 득	200만원 미만 (146)	2.32	2.89
	200~300만원미만 (194)	2.25	2.63
	300~400만원미만 (166)	2.19	2.50
	400만원 이상 (124)	2.32	2.60
	F 값	.483	3.623 *
직 업	사 무 직 (223)	2.40	2.61
	비사무직 (134)	2.26	2.67
	학 생 (209)	2.13	2.70
	전업주부 (64)	2.23	2.59
	F 값	2.271	.372
인터넷 사용시간 (집)	light user (283)	2.25	2.56
	heavy user (310)	2.26	2.77
	t 값	-.193	-2.412 *
인터넷 사용능력	하 (35)	1.86	2.46
	중 (208)	2.26	2.72
	상 (387)	2.30	2.63
	F 값	2.734	.999

* p<.05 ** p<.01 *** p<.001

해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및 직업 및 집에서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 능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2.52)보다

는 남성(2.79)이, 기혼(2.52)보다는 미혼(2.74)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느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10대(2.89)와 20대(2.70)가 30대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인터넷 관련 변수별 대인적자원관리문제

변 수	집 단 (빈도)	대인적자원관리문제		
		가족공유시간 감소	가족 공통 관심사 감소	가족불화 유발
성 별	남 성 (330)	3.00	2.79	2.29
	여 성 (300)	2.80	2.52	2.03
	t 값	2.410 *	3.347 **	2.965 **
연 령	10대 (121)	3.24	2.89	2.55
	20대 (261)	2.88	2.70	2.06
	30대 (188)	2.88	2.58	2.03
	40대 (60)	2.40	2.27	2.27
	F 값	8.943 ***	5.653 **	7.220 ***
결혼여부	기 혼 (232)	2.74	2.52	2.15
	미 혼 (398)	3.00	2.74	2.18
	t 값	-2.938 **	-2.616 *	-3.23
교육수준	고등학생 (89)	3.19	2.84	2.65
	대 학 생 (119)	3.11	2.85	2.22
	고 졸 (131)	2.59	2.46	2.07
	대졸이상 (291)	2.87	2.62	2.04
	F 값	7.855 ***	4.241 **	7.822 ***
소 득	200만원 미만 (146)	3.07	2.73	2.25
	200~300만원미만 (194)	2.85	2.60	2.11
	300~400만원미만 (166)	2.80	2.62	2.19
	400만원 이상 (124)	2.94	2.72	2.11
	F 값	2.013	.696	.573
직 업	사 무 직 (223)	2.83	2.58	2.06
	비사무직 (134)	2.78	2.62	2.01
	학 생 (209)	3.13	2.82	2.39
	전업주부 (64)	2.69	2.47	2.09
	F 값	5.133 **	3.028 *	4.643 **
인터넷 사용시간 (집)	light user (283)	2.65	2.50	2.18
	heavy user (310)	3.18	2.85	2.21
	t 값	-6.308 ***	-4.209 ***	-.287
인터넷 사용능력	하 (35)	2.43	2.14	2.00
	중 (208)	2.80	2.64	2.24
	상 (387)	3.00	2.71	2.14
	F 값	6.132 **	5.074 **	.910

* p<.05 ** p<.01 *** p<.001

(2.58)와 40대(2.27)보다는 더 크게 인식하며,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2.84, 2.85로 고졸집단(2.46)이나 대졸이상 집단 (2.62)에 비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집단(2.82)이 가장 높게, 전업주부 집단(2.47)이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을 하면서 가족과의 소원을 느끼게 되는 반면, 주부가 인터넷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자녀나 남편과의 공통 관심사를 더 많이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인터넷 사용이 대인적 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현아(2001)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사용 이후 주부들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이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해 가족소원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으며, 이를 통해 주부의 인터넷 사용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집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집단(2.50)이 그렇지 않은 집단(2.85)보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능력이 높은 집단일수록(하 2.11 / 중 2.61 / 상 2.71) 문제를 크게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불화 유발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2.03)보다는 남성(2.29)이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55로 가장 높게, 다음으로 40대가 2.27로 높은 정도로 인식하였으며, 20대(2.06)와 30대는(2.03)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10대의 경우에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따른 불건전사이트 이용 문제로 부모-자녀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될 소지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10대 및 그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40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나 직업별로 볼 때에도 학생 집단, 특히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에 가장 문제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위에서 시간관리, 금전관리 및 대인적자원

관리의 세 가지 자원 관리상의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보통 이하로 나타나-시간관리 문제는 5점 만점에 3.02점, 금전관리 문제는 2.46점, 대인적자원관리 문제는 2.58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에 따른 차이가 컸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고 인터넷 사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집단에 있어 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있어, 향후 인터넷 사용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가정자원관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정 내에 나타나는 문제로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가족구성원의 시간사용에 있어서의 계획성 결여와 균형 상실의 문제,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가족원의 충동구매 우려와 통신비 과다로 인한 가계의 부담, 그리고 가정 내의 정보격차와 관련한 가족 간 소원 및 불건전 정보 이용으로 인한 불화 등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원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관리 교육과 정책 마련의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자원관리 관련 교육

① 시간관리 관련 교육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시간관리의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 집단은 고등학생 집단(10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간관리 교육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들의 무절제한 인터넷 사용은 수면시간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정보화 교육은 온라인 공간 이용에 필요한 기기 활용 방법의 습득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보윤리의식이나 기본 습관 형성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대상의 교육에 있어 인터넷 사용시의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관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컴퓨터를 자녀 방에 두기보다는 거실 등의 공동 공간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이현아(2001)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시간관리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는 개인의 시간활용능력으로 나타나, 시간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② 금전관리 관련 교육

위의 결과에서 볼 때 인터넷 사용에 따른 충동구매의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집단은 대학생 및 대졸이상 학력 집단이며 미혼보다는 기혼,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대상은 대학생 또는 대졸이상의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구매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데 대한 내용 및 구매 후 구매절차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사이버 마켓에서의 소비자 충동구매성향을 분석한 김영숙(2000)의 연구에서 사이버 마켓에서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충동구매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지식과 정보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감소시켜주는 요인임을 보여주었고 사이버 환경에서의 구매 및 피해구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지출비목 간 균형의 문제도 중요한데, 인터넷 사용 이후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비목의 지출에 지장을 받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집단은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이었다. 사회 전체적으로 통신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집단에 있어서 그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된 것이다. 이기춘 외(2002)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계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통신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비목별 지

출계획과 가계부기를 통한 점검 및 조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 집단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대인적자원관리 관련 교육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 내 대인관계에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또는 부부 간의 디지털 분할(digital divide)현상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최영희, 2001).

앞의 결과 분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0대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가족과의 공유시간 감소 및 가족과의 공통관심사의 감소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가족과의 공통 관심사가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정보화에서 가장 제외되어 왔던 대상인 주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인터넷을 사용하던 타 가족원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현아(2001)의 연구에서도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이 다양해졌다”, “부모자녀 간 대화의 내용이 다양해졌다”, “남편과의 정보격차가 줄어들었다” 라는 문항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자녀나 남편에 비해 인터넷 사용 정도가 가장 낮은 주부들의 인터넷 사용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가족원 간에 불건전정보 이용으로 인한 불화를 겪을 수 있다. 위의 결과 분석에서 10대와 그 부모세대인 40대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필요한 교육을 통해 부모 자신이 인터넷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음란물 뿐 아니라 자살사이트나 살인청부 사이트 등 극도로 유해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만큼 부모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장진경(2001)의 연구 결과, 인터넷 이용장소 중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사이버상의 부

적절 행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2) 정책적 대응방안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교육에 더불어, 좀더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인 대응으로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줄여나감으로써 가족원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게끔 하는 방안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가는 방안 및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 그리고 소비자 지향적인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제재를 강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① 가족원 간 정보격차의 해소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 내에서 가족원 간 정보격차로 인해 성별, 연령별로 가족원 간 소외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대상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만 한다. 2000년 이래 정보통신부의 주부 대상 인터넷 교육사업을 통해 주부에 대한 인터넷 보급이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세대 간 정보격차는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인터넷 보급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과 부모 세대 간에 불건전한 정보 이용과 관련한 불화의 소지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사이버 상에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해정보들로부터 네티즌, 그 중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정보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유해정보의 공급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보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이용자 신원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에서의 정보에 대한 제재

본 연구 결과에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총

동구매의 문제를 겪는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심각하지 않았으나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고학력 남성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됨을 볼 수 있었으며, 사이버상의 총동구매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배너광고임이 김영숙(2000)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④ 가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가족 문화에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박부진·이혜영, 2000). 본 연구결과에서도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집단일수록 가족공유시간이나 가족 간 공통 관심사가 줄며 가족 간 불화가 유발되는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대나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 오히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가족공유시간이 늘거나 가족 간 공통 관심사가 느는 것으로 응답하여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인터넷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 가족원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콘텐츠의 제공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문제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이상에서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가정자원 관리의 문제를 시간과 금전, 대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을 교육과 정책의 두 측면에서 강구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그 해결은 가정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며, 관련 기관의 교육과 행정적 대응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하지만 필요한 교육과 정책적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가정 및 가정관리자의 능력과 의지에 달

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인터넷 교육에서 포함되어 있지 못한 시간관리에 관한 교육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교육, 재무관리 및 신용관리 교육 등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며, 이는 생활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자원관리학 및 소비자학 분야의 학계에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노력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한 제언을 많이 하였는데,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의 내용은 실제 교육과정에서의 피이드백을 통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선주 (2000). 정보사회와 가족 :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2), 167-183.
- 2) 김영숙 (2000). 사이버 마켓에서의 소비자 충동구매성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1-129.
- 3) 김정현 (2002).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미석 (2002).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8), 71-86.
- 5) 박미석 · 이유리 (2000).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정도과 활용정도. 대한가정학회지 38(4), 163-176.
- 6) 박부진 · 이해영 (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21세기 새로운 가족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3-34.
- 7) 백종화 · 박성연 (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8) 이기영 · 이현아 (2002). 가정정보화와 이로 인한 가정자원관리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7-31.
- 9) 이기춘 · 이기영 · 여정성 · 최현자 · 김난도 (2002).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와 대응방안, 2000년도 대학연구센터(팀) 1-2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 10) 이현아 (2001). 주부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1) 임정빈 · 지영숙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 (2002). 가정관리학. 신정.
- 12) 장진경 (2001). 건전한 사이버문화 형성을 위한 사이버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2), 15-35.
- 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가정에서의 올바른 인터넷 소비교육 실천방안」. 정보통신윤리 2001년 4월호. .
- 14) 정서린 (2000). 정보화가 가정생활 구조에 미친 영향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조정문 · 임정덕 · 김성국 · 이대식 · 김영삼 · 조영복 · 신중국 (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집 여름호, 389-415.
- 16) 조희경 (2001).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정보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접근용이성과 충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7) 최영희 (2001).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자녀 성교육". 디지털시대 중년기 가족의 가정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 30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18)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2000년 국민정보

- 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 19)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th ed. Allyn & Bacon Inc., Boston.
- 20)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21)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0). Tracking online life : How woma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friends. (<http://www.pewinternset.org/reports/pdfs/Report1.pdf>)